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75)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21강 추상적 이념 vs 구체적 고통

불교처럼 실용과 구체성을 중시하는 사유는 '자유'나 '민주' 같은 추상적 이념을 절대화하지 않는다.

불교계 또한 언젠가 생명의 시작으로 볼 것이나, 수정 때나 착상이나를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이 접근은 불교의 규범 가운데 '불살생'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1. '고통'의 진리에서 출발하는 생명윤리 불교는 '생명'과 '환경', 그리고 '인권'에 친화적이다.

출발은 불교의 위대한 진리 가운데 첫 번째인 '고통'이어야 하지 않을까.

2. 불살생은 지킬 수 없다 사람이 살아야 한다면 불살생은 지킬 수 없는 덕목이다.

두르고 외치는 구호는 너무 깨끗해서 쉽게 악마로 변질한다.

3. 법(法)조차 버려야 하거늘 동아시아의 전통은 추상적 이념보다 구체적 실용에 철저하다.

아야 한다. 공자가 남쪽 초나라의 성공을 만났다. 성공은 이렇게 넘지시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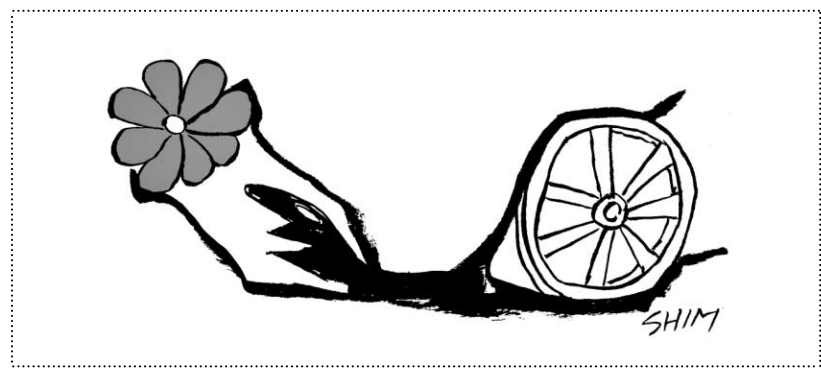
모두는 좌절한다. 사태가 어떤 식으로 진행 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미 승자는 없이 패배자들뿐이고, 이익은 없고, 무진장한 손해만 있다.

진실, 그보다 더 소중한 희망

겸허하며, 우리 속에 자라고 있을 잔인함을 누르고 무심함을 일깨우려는 것이었다.

이 현실 앞에서 칼릴 지브란은 <예언자>에서, 심령의 내면에서 나를 위해 몸을 내놓는 생명들을 기억하자고 주문했다.

우리는 살육과 전쟁 속에 있다. 그래서 원광법사는 살생유역, '함부로 불필요하게 죽이지 말라'고 했고, 칼을 들지 말라고는 할 수 없었다.



님의 명령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선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분명히 알고 있다.

그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라면 추상적 원칙이나 이념조차 버릴 각오가 되어 있다.

'그 사람'이 입을 상처에 더 가슴이 아리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것이 공동체나 인류의 공통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면, 함부로 정직과 '진실'을 앞세워 되는대로 까발려서는 안 된다.

4. 진실, 그보다 더 소중한 희망 황우석 박사를 둘러싼 진실 게임에 우리

그러나 만일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한두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 있어도, 전체를 상대로 하는 속임수가 가당하구나 하겠는가.

공자와 성공 사이에 오간 말의 맥락을 짚어주어야겠다. 성공은 황하 저쪽 공자의 고향 노나라의 정세가 궁궁했다.

공자는 정직 운운하는 성공의 의도를 알았다. 그래서 정직 은유로 응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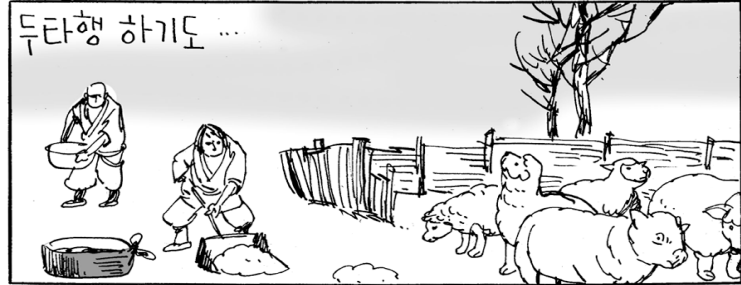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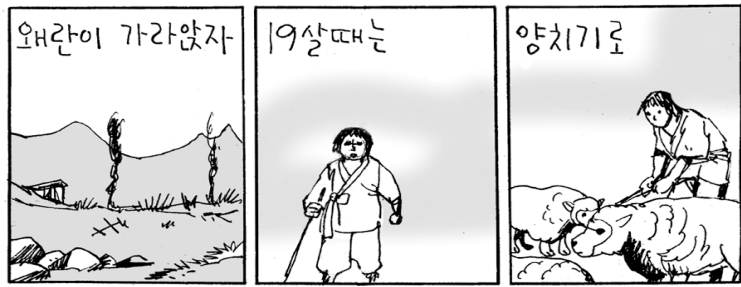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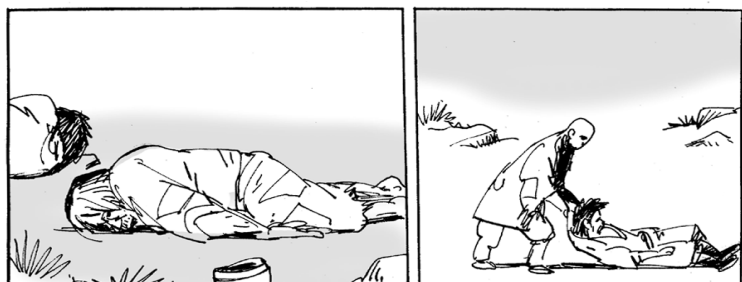
공자는 정직 운운하는 성공의 의도를 알았다. 그래서 정직 은유로 응대했다.

주장사파라...

97 글 편양언기 선사의 '두타행'



조태호



편양언기(嚴羊彦機-1581~1644): 조선중기 고승, 서산대사의 제자로 선지를 이음. 저서에 <편양당집>이 있음.

네터즌 교리문답

교화(教化)의 불교적 의미는?

교화란 말은 교도행정에서 흔히 쓰는 말입니다. '사람을 교화시켜 새 사람으로 만든다는 의미 정도로 이해되는데요. 이 말이 불교에서도 중요한 뜻으로 사용됩니다.

답1: 일상생활에서 악행을 하거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끌어내는 의미로 교화(敎化)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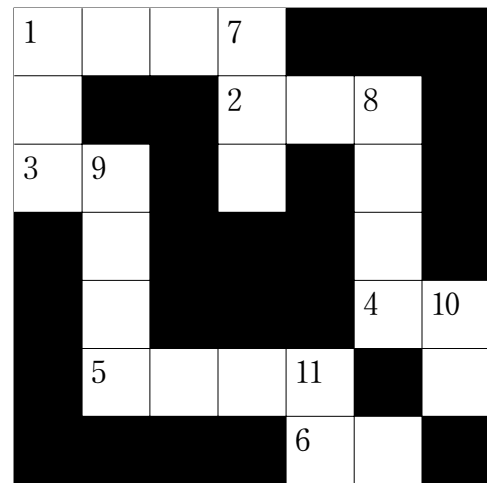
답2: <불본행집경> 권30 교화병장품에서는 부처님이 다섯 비구에게 법을 설한 뒤 전도의 길을 떠나며 중생교화의 원력을 세우게 하는 의미 깊은 대목이 나옵니다.

이렇게 부처님은 진리를 증득하여 해탈한 제자들도 하여금 세상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빨리 많은 지방으로 가서 불법을 알리고 교화케 했습니다.

답3: <대별반경> 권1에서는 "대승법으로 중생을 교화한다(大乘佛法教化衆生)"고 전하고 있습니다.

답4: <왕생론주>에서는 중생을 교화하는 단계에 이른 보살의 지위를 '교화지(敎化地)'라 합니다.

부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터즌 교리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1. '조정'의 모든 벼슬아치 또는 모든 문무관료란 뜻의 한자성어 2. 자연의 경치를 주제로 그린 동양화 3. '레이저' 각막절삭 가공 성형술로 불리는 시력교정수술 4. 쇠꼬리 등을 고아 곁먹을 뿌리고 식혀서 목처럼 만든 음식 5. 고리 모양의 체질 구조를 가진 무척추동물군의 총칭 6. 경제의 3주제는 'O, 기업, 정부'.

정답은 26면에

세로

1. 수도승의 고뇌와 방황을 통해 진정한 깨달음이 무엇인가를 그린 김성동의 장편소설 7. 충북 옥천군에 있는 성으로 삼국시대 백제의 성왕이 전사한 곳 8.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덧붙여 도리어 일을 그르침을 이르는 말 9.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쓸데없는 격정도 그만큼 많다는 뜻 10. 신돈의 법명 11. 여러 재화의 개별가격을 종합·평균한 것.